

세상 그치고 자신과 대화하는
팔방미인 인쇄인



시집 · 수필집 등
7권 출간한 문인

강용원 사장
백년 후에 오케이

세상 사람들이여

강용원

이웃이여

내가 물이 되었으니

그대들은 말갯죽이가 되어주세요

그대가 없다면 반죽을 할 수 없소

우리 맛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친구여

내가 배가 되었네 그대는 돈대가 되어 주오

그대가 없으면 배가 갈수 없소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세요.

부인이여

내가 지게가 되었소 그대는 작대기가 되어주오

그대가 없으면 짐을 질 수가 없소

우리 행복한 짐을 지고 저 세상까지 같이 갑시다.

세상사람들이여

맛 있는 빵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한 짐을 지고

파도치는 백길처럼 힘찬 세상을

웃음으로 같이 갑시다.

세상과, 그리고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팔방미인이 있다. 인쇄인이자 출판인, 시인, 문인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주)백년후에 오케이의 강용원 대표가 바로 화제의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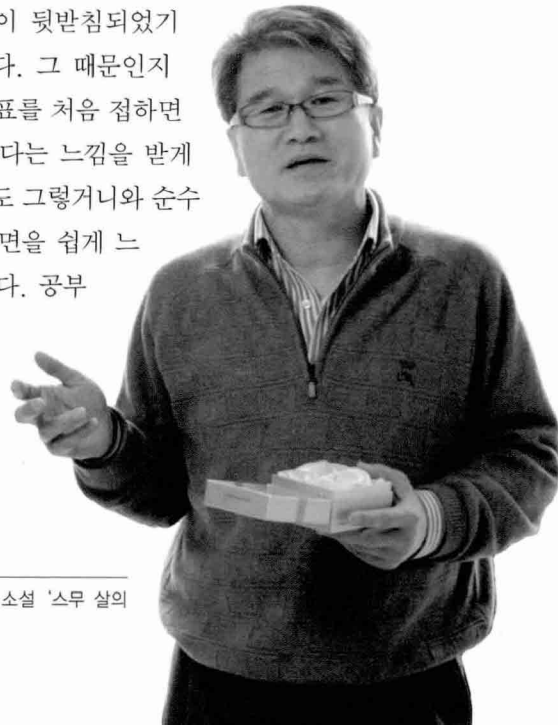
얼핏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색적인 회사의 상호에 대한 질문이 인터뷰의 첫 질문이 되었다. “백년후에도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회사 상호에 표시하게 되었다”는 것이 강 대표의 설명이다.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자신의 쓴 글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한다.

“나의 삶은 우리들의 후손들이 백년 후에 맛있는 과일을 편안하게 따 먹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고 싶다”는 글은 ‘백년후에 오케이’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강 대표는 지난 1997년부터 저술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강대표의 말에 따르면 우연찮은 기회에 책을 펴내게 되었다지만 한편 한편 그가 칩필한 책의 내용은

결코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에세이집 ‘인생은 어디로 가나’ (상,하)를 시작으로 시집 ‘바람에 낙엽처럼 물 위에 종이배처럼’, 소설 ‘스무 살의 마지막 여행’ (1,2)과 최근 선보인 시집 ‘바람아 세월아 간다’, 에세이집 ‘세상이여 같이 놀자’ 에 이르기까지 무려 7권에 달하는 책을 쓰게 것도 알고보면

그의 필력과 열정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강 대표를 처음 접하면 학자 혹은 시인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차분한 말투도 그렇거니와 순수함과 열정의 한 단면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 를 제대로 못했지만 ‘대망’ 과 ‘삼국지’ 라는 두 권의 책을 읽으며 많





강용원 사장이 저술한 책들.

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요즘 젊은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끈
열정이 시와 에세이로 표출되었다.

그는 그의 이런 심정을

“어린 시절 성장과정에서 먹고 싶은 것만
가려 먹어서 어려움을 몰랐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기에 참을성이 없다.
공부를 안 해서 멍청하다.
책을 보지 않아 무식하다.
노력이 없었기에 얻은 것도 없다.
눈을 뜨지 못해 갈 길을 몰랐다.
생각만 있고 행동이 안 따라 줘서 괴로웠다.
어리석음이 이 발길을 붙잡고 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노력이 부족하여 현실을 바라보지 못함이 어
리석음이다. 이제사 세상을 보는 눈을 뜨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스무살의 마지막 여행’ 머리말 중에서

긴 안목으로 세상 보기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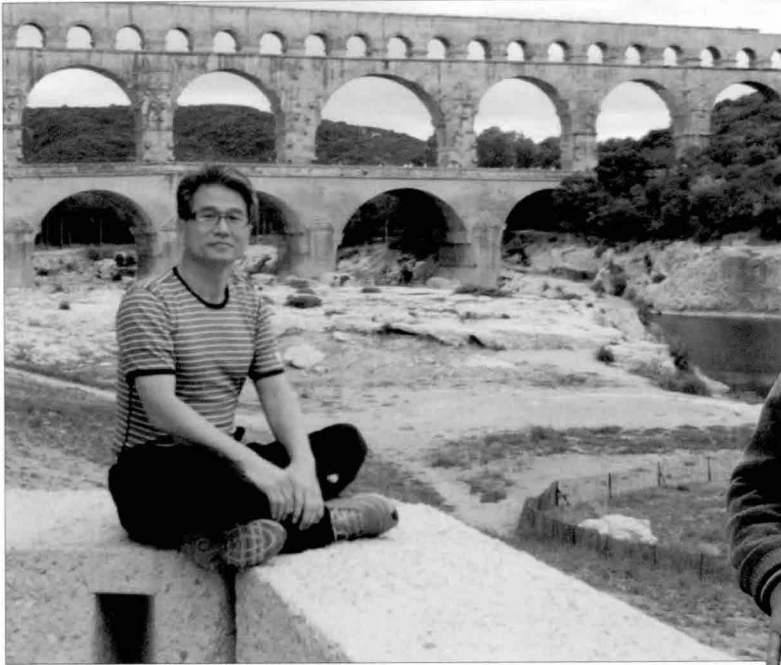
강 대표가 인쇄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략 30년쯤 된다.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시작한 사업에 2번 쓴 맛을 보고 난 뒤에, 사업에는 홍보가 필요
할 뿐 아니라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상업인쇄를 시작한 이후 강
산이 3번 변할 정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을 바꾼
까닭은 말 그대로 백년 후에도 가치가 변함없는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tip 대표작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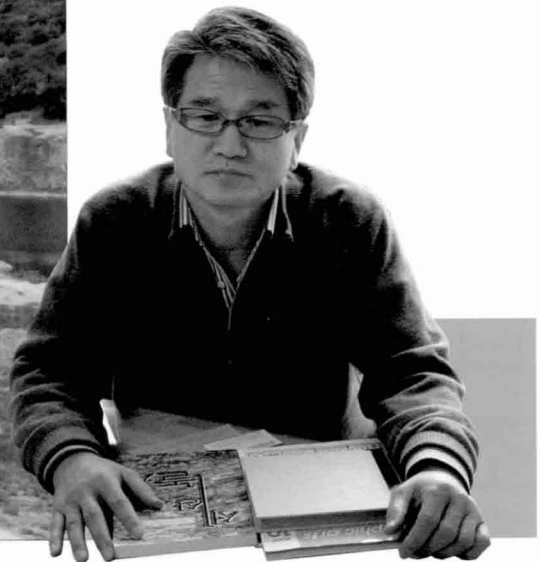
세상이여 같이 놀자
강용원 대표가 최근에 펴낸 에세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정리했다. 상대의 이론이나 세 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키우며 성장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이야기 한다.

바람아 세월아 간다
두 번째로 펴낸 시집. 2007년 10월에 출간되었다. 삶을 되돌아 보면서 느낀 단상을 잔잔하게 그려냈다는 평이다.

스무살의 마지막 여행 1, 2
삶에 대한 성찰을 담은 소설. 1969년 10월 20일 스무살의 한 젊은이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살을 하고자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일어나는 일들을 소설로 옮긴 것이다.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삶의 사상과 철학, 인연의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추억과 그리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다.



해외여행은 여러면에서 새로운 충전의 기회가 되어주며 자기성찰의 시간이 된다고 강대표는 말한다.



의지의 표현이다. 패키지의 지함 박스, 카탈로그, 쇼핑백, 라벨, 카드 등 제품포장에 필요한 모든 자재에 인쇄가 가능한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고객의 요구에 만족스런 고급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화답하고 있다. 실제로 백년후에 오케이의 제품은 그 품질을 인정받아 국내에서는 한화그룹으로부터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명절용 선물 포장, 수험생 격려용 선물포장 등으로 납품되었으며 외국계 유명 회사의 본사로도 납품되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되는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강대표는 “디자인, 색상, 내구성 등 품질에서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일부 고객사에서 제품에 대한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일단 깎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다소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래서 고객들에게 전문가 의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면 공급자와 고객이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결코 구호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사실 강 대표는 인쇄업계도 자성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윤만 쫓다 보니 일부업체들에게서 품질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업계 전체가 공멸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인쇄인 개개인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협력해서 좋은 제품으로 선의의 경

쟁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백년후에 오케이는 을지로에 본사를 두고 성동구 성수동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백년후에출판’이라는 자회사를 두고서 지명원과 회사소개서, 도록, 브로슈어, 단행본, 북 커버 디자인업무도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그리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10명이 넘는 회사 식구들에게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행복감과 함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한다.

욕심 부리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온 그의 인생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사명의식 갖고 고품격 제품 제작한다는 자부심

“인쇄는 천직”이라고 말하는 강 대표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에 쫓겨 정도를 쉽게 벗어나는 게 안타깝지만 30년 세월동안 지켜 온 ‘가치 중시’의 경영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젊은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끝으로 자신의 작품인 “세상 사람들이여”에 담긴 마음은 자신과 사람들에게 하는 자신의 고백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